중 · 고령은퇴자 신체건강 변화궤적의 예측요인 : 은퇴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xamining Trajectory of Retirees' Physical Health and Its Predictors : The Impact of Retirement Characteristics

정미경

강원대학교

Jeong Mee-Ky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이 시간이 지난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나타내는지, 은퇴 후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은퇴 특성(은퇴시점, 은퇴자발성 여부) 변인이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의 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시(2009년), 4차시(2011년), 5차시(2013년) 중단자료이며, 2,857명을 대상 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은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고령은퇴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ADL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변화와 관련이 있는 은퇴특성은 무엇인지 조건부 모형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은퇴 특성 변수 로는 조기은퇴자일 때, 은퇴가 비자발적일 때, 건강상 이유로 은퇴했을 때 더 높은 ADL 초기값을 보였다. 또한 변화궤적 영향요 이을 살펴본 결과, 은퇴특성에서는 어떤 변수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ADL의 증가속도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I.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은퇴의 일반적인 정의는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따른 것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따로 구직활동 도 하지 않는 상태[1][2]를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들에게 있어서 일이란 삶의 중심이고, 삶의 질을 결정하 기도 하는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3] 는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일을 통해 사회에서 자신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은퇴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밖에 없다[4][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 강상태는 은퇴 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 으로 우리나라 중·고령 은퇴자들이 이후 신체적 건강에 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리고 그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 치는 예측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 · 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중·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변화와 관 련이 있는 은퇴특성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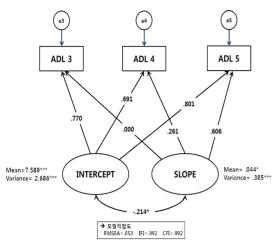
본 연구는 중 · 고령은퇴자의 신체건강 변화 궤적을 살 펴보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의 3차시(2009년), 4차시(2011년), 5차시(2013년) 자료를 활용한다. 해당 자료의 3차시 기 준 '은퇴여부'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만 50세 이상 중ㆍ 고령자 중, 4차시와 5차시까지에 거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인 은퇴자 2,85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일상생활활동 (Active Daily Living: ADL)은 3차시부터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조사된 일상생활활동(ADL) 지표 를 활용하였다. 은퇴특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변 수를 투입한다. 기준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만 60 세인 점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한 근로권적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것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우혜경 & 조영 태, 2013). 은퇴자발성과 관련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에 서 은퇴 당시의 자발성 여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는 SPSS 18.0 통계패 키지를 사용하였고,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AMOS 21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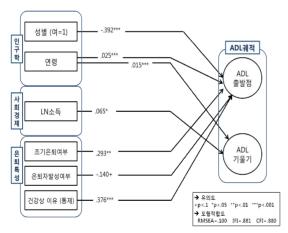
Ⅲ.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한 무조건부 모형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신체건강(ADL) 변화궤적의 무조건부 모형 결과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부 모형의 결과는 그 림 2와 같다.



▶▶ 그림 2. 신체건강(ADL) 변화궤적의 조건부 모형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은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고령은퇴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ADL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DL 초기값이 높을수록 ADL의 증가속도는 점차 완만해지고, 반면에 ADL 초기값이 낮을수록 ADL의 증가속도는 점차 가파르게 나타났다. 즉, ADL 초기값이 높은 경우에는 중·고령은퇴자들의 신체건강 변화궤적에 일부 천장효과(Ceilling Effect)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ADL 초기값이 낮은 경우에는 변화 폭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변화와 관련이 있는 은퇴특성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건부 모형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ADL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은퇴 특성 변수로는 조기은퇴자일 때,

은퇴가 비자발적일 때, 건강상 이유로 은퇴했을 때 더 높은 ADL 초기값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로는 남성일 때,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ADL 초기값을 보였다. 또한 변화궤적, 즉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은퇴특성에서는 어떤 변수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ADL의 증가속도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 참 고 문 헌 ■

- [1] 석상훈.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pp. 81-102, 2011.
- [2] Arrighi, H. M., and Hertz-Picciotto, I., "The evolving concept of the healthy worker survivor effect", Epidemiology, Vol. 31, pp. 189-196, 1994.
- [3] Isaksson, K., and Johansson, G., "Adaptation to continued work and early retirement following downsizing: Long-term effect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73, No 2, pp. 241-256, 2000.
- [4] Arrighi, H. M., & Hertz-Picciotto, I., The evolving concept of the healthy worker survivor effect. Epidemiology, pp. 1994.
- [5] Dave, D., Rashad, I., & Spasojevic, J., The effects of retiremen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utcomes (No. 1212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6.